

요 16: 25~33 기도_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1. 유월절이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었지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께서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초에 기록한 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지요.
2. 예수님께서 그러니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겠지요. 마지막이 다가오는 줄 알면서도 손놓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막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좋은 준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3. 준비없는 죽음을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예전 마저 못한 것은 아니겠지요. 만약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면, 그건 단지 그에게 시간이 없었을 따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기회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4. 큰 명절이 가까우면서, 예수님의 준비는 더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도 그 일환이지요. 그 사이에 예수께서는 여러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아버지 집에서 그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라고도 밝혀 주셨지요.
5. 재미있는 것은,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도마처럼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요 14:5)”. 함께 가면서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만약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의 사람을 후회없이, 더 깊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 사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채,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오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요 16:25)” 그래서 그들이,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요 16:18).”
7.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비유의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비유 대신에, 밝히 말씀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8. 28절을 보면, 곧 그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밝히셨지요? 그때 그걸 들은 제자들은 29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9. 그러니까 이 말은 때가 있다는 소리지요. 뒤집어서 말하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알게 된다면, 그건 때가 되어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었지요. 그건 그 때를 지정하시는 예수께 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또는 믿게 되는 것도, 그분 손아귀에 달렸습니다.
10.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진실과 진리의 주권이 예수께 있다는 말이고, 또 그런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라는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하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11. 상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이지요.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마저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당시 그 제자들에게는 그 아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 요 근래 우리가 성경학당에서 다루었던 것이 멜랑히톤의 로치 콤뮤네스입니다. 그 첫 장이 “자유의지”였지요. 그 “자유의지”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과, 또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음을 알리시는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
13.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주어진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건 주시는 분의 주권에 달렸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에 있는, 소위 열등한 것일 뿐이지요.
14. 그래서 교회는 인간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주시는 분을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는 그분의 손에 달린 셈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노예의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나왔다가 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15.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종보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너희가 직접 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는다는 말씀입니까? 예수가 예루살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과 그 때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선다면, “구한다”는 것이 무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소위 기도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 바로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예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의지”의 경우와 같지요. 기도란,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능력이란 말입니다.

18. 30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니이다”. 여기서 “사람의 물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위 우리가 “기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강요하고 심지어 협박하는 행위이지요. 그런데 질문은, 그런 기도가 있어서 누군가가 응답한다면, 그가 참 신일까요?
19. 엘리야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한 사람과 그려자고 약속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입니다. 그 850명에게 있어서 “참 신”이란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신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여부에 참 신의 여부가 달렸지요.
20.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고백하는 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지 않는 신! 도리어 알려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시는 신!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 무얼 줄 지 말지도 알아서 정하시는 분! 다른 표현으로, 전능하셔서 무소부재하신 분, 또 천지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뜻대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심지어 자신의 죽음도 스스로 정하시는 분!
21. 하나님은 그런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미리 아십니다. 그럼 뭐하려 기도가 필요하냐고 하시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때에자의 뜻을 따라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임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격식을 갖추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우리가 허락을 받고 구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격을 가지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된 것처럼, 말이지요.
23. 이런 거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들 된 자로서 담대하게, 마땅히 알 것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지요.
24. 그래서 예수께서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라고 하신 것은, 그 약속의 때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신의 아들이 되어서, 그 양자로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가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 제자들에게 밝히 이르시기를, “우리가 그런 자격과 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두려움 없이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25. 제가 듀오링고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옆집 아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옆집

이웃의 딸이에요!” 이 말에 적절한 대응은? 1) “반갑습니다!” 2) “여기 있다 집열쇠” 3) “저는 릴리에요”

26. 예수께서 그날에 제자들에게 밝히 이르시겠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가 어떤 분인지, 언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런게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지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27. 27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믿었는지, 또 누가 사랑으로 응답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둘이 무슨 관계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이 되었다는 소리지요.
28.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배려하시고 준비하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말이지요. 그걸 위해 때를 정하시고, 또 그 비밀을 밝혀주시는 예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의 의미입니다.
29.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과 결핍한 것과 바라는 것들을 제쳐두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 당당하게 그의 아들이 되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 진 건,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연고인 것입니다.